

2013  
02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사법연수원생 모의 토론회 개최

**인터뷰**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언론 사람

제152호



# Contents

## 이 달의 주요뉴스

- 03** 학교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주요 쟁점 논의  
언론중재위원회, 사법연수원생 모의 토론회 개최

## 인터뷰

- 04** 살아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 위원단상

- 06** 설 그리고 시간

##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 07** 월남쌈

## 나의 언론분쟁 경험기

- 08** 신참 변호사에게 비친 언론위

## 판례토크

- 09** 저속한 표현? ‘닥치고’

## 이용재의 질문노트

- 10** 언론으로 거머쥔 권력자의 일대기,  
영화「시민 케인」

## 신 동의보감

- 11** 감기와 독감, 어떻게 다른가요?

- 12** 위원동정

- 13** 위원회 소식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 언론 사람 | 2013. 02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2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식악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주요 쟁점 논의

## 언론중재위원회, 사법연수원생 모의 토론회 개최

● 언론중재위원회는 1월 17일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의 보호”라는 주제로 모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연수원생이 패널로 참가해 피해자와 언론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김경돈 연수생은 보충 토론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언론보도”라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보도시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공정성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환 연수생은 “언론의 자유와 청소년 인격권 보호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익명보도 및 반론권 보장과 더불어 학교폭력 자체의 선정적인 보도 대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 비판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 서울 제2중재부 장진훈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해당 조정 사례는 사안은 간단하지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많았는데,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잘 요약했다”며 사안의 공익성, 피해자의 특징, 보도의 긴급성 유무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평했다.

● 서울신문 임태순 논설위원은 “사회부 기사는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경향이 있어, 기사 작성시 항상 반대편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노력한다”며 언론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다.

●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후 “실제 조정·중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 프로그램은 언론중재위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연수프로그램”이라며, “현장 중심의 이번 실무수습이 향후 법조인으로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사법연수원생, 장진훈 중재부장, 임태순 논설위원을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재편 |

언론중재위원회는 2013. 1. 1.자로 연구본부를 교육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교육팀을 연속교육팀과 수시교육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교육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및 양상의 복잡화로 인해 언론분쟁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연속교육팀은 언론조정·중재 전문가 과정, 교사직무연수, 법무수습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시교육팀은 일반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언론분쟁예방 및 구제 교육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 “살아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 (현)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 원장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방송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한국PR협회 회장
- Harvard Yenching 학회 회장



언론 분야 융지를 품은 제자들을 위해 미디어관 열람실을 기부한 언론학자요, 매년 언론과 법 분야에서 탁월한 저술과 학술논문, 판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기금을 쾌척했던 언론법학회 창립 회장. 은퇴 후에도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 원장에 취임하여 국·내외 교육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하며 지내고 있는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 ● 위원회에서는 1993년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으로 인연을 맺으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요.

대학에서 언론윤리법규 강좌를 맡아 가르치던 중,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학을 벗어나 언론분쟁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으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지만, 신청인이 정정보도 등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게 된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위원회 위원에 위촉되면서 언론중재위원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실용적인 연구자료와 경험을 얻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이면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을 맡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미디어 관련 학과의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봐도 매스미디어의 중심이동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학과의 명칭은 신문학과-신문방송학과-언론학과-언론정보학과-커뮤니케이션학부-미디어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광고홍보영상학과-영상학과-영상문화학부-디지털콘텐츠학부 등으로 다양하게 변해 왔습니다. 이는 미디어 관련 기술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미디어가 생성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피동적 소비자로 머물지 말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보에 대처하는 미디어 주권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안철수 신드롬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보사회구조가 민주주의(Democracy)에서 에드호크러시(Adhocracy<sup>1)</sup>)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Adhocracy를 풀어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그들의 권한을 공적 매개체나 대표자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현안에 대응하여 SNS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정책까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디지털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수용자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빈자 편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해야겠지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 예방하는 등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Adhocracy : 미래학자 앨빈토플러의 저서 <미래충격>에 나오는 용어로, 유기적, 기능적, 임시적 조직을 말한다. 1988년 원우현 저 '현대미디어이론'에서는 앨빈 토플러의 Adhocracy 개념이 소개되었고, 그 이론을 전파했다.

●● 정년퇴임 이후 교수님은 물론 사모님(연세대 이방숙 명예교수)도 봉직했던 대학교에 기부도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 재능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신데, 나눔활동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남몰래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귀한 법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 내가 살아온 것이 부모님을 포함한 세상의 덕분이라는 것을 한 순간 벽차게 느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같아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지 시간과 마음과 돈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과 마음과 돈을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며 생존하기 위해 애썼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타인에게로 향하게 되더군요.

몇 해 전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돈 천 만원을 고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짓는 데 헌신한 것을 한글 경연대회에서 들었습니다. 그 후 그 네팔 산골교회를 위해서 미자립 상태인 철우한빛교회를 통하여 전적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원 탈북자들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로지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사랑의 나눔이 그 기반과 뿌리에 미쳐 열매와 과실을 매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구체적인 예로 매년 언론법 분야의 우수 저술과 판례를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봉직했던 대학교에 조그마한 열람실을 위해 일부 기부하여 매년 재학생들이 청춘의 꿈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네 팔 오지 교회에 기반시설을 마련해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회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2년 사회공헌단을 창단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직원들의 나눔활동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공헌단의 창단은 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회적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엿보인 대목입니다. 홍보나 걸치레로 나눔의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는 자못 진지한 면이 있더군요.

그 예로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회의 역기능(Dysfunction)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다룬 점에서 돋보이더군요. 언론중재위원회가 31년간 R&D를 통해 축적해 온 특별한 지식과 전문적인 정보를 우리 사회로 전파하는 이러한 활동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최



제자들을 위해 기부한 고려대 미디어학부 열람실 앞에서

근, 그 간의 노하우를 교육으로 집약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언론인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나눔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 현재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재임하시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는지요.

제가 제14대 회장을 지낸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15개의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의 유일한 협의체로 37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가 그동안의 연구사업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사회 현장에 투입해 학문의 실용성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2012년 1월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제가 초대원장을 맡게 되었지요.

본 아카데미는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인자라, 수강대상국에서 국가권력 측면에서나 학문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민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는 브루나이 중견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행정, 환경,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꾸렸고,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현장 학습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한민국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

지만, 외국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교육이나 행정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2012년 2월 브루나이 중견 고위공무원들과 함께

●●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며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데,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주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엔 오히려 마음과 몸을 활짝 펴고 살아야 합니다. 움켜쥐었던 두 손을 활짝 펴서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십시오.

로마의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대로,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같이 행동합니다. 빠른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 흥얼대면서 지내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예컨대 제가 은퇴 직후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지금쯤 원서를 읽으며 하늘의 세계를 시원하게 꿈꾸며 소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설 그리고 시간



조 동 수 위원  
광주중재부(전 광주일보 주필)

‘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봤더니 대충 다섯 가지였다. ① ‘삼가다’는 의미. 앞으로 1년간 무사하도록 조심하고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② ‘썰다’는 의미. 나이가 들어가니 서글퍼진다는 뜻이다. ③ ‘낫설다’는 의미. 새로 열리는 미래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한다. ④ ‘서다’는 의미. 새해를 새로 세운다는 데서 연유했다. ⑤ ‘해’나 ‘나이’를 지칭하는 고어(古語)다.

모두 시간과 관련이 깊은데 특히 ②와 ⑤가 그렇다. 어린 아이들이야 한 살 더 먹는 것이 자랑스럽겠지만 황혼기에 접어들면 원단(元旦)이 반갑지 않다. ‘인생 70 고래희(古來稀)’가 옛 말이 되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 자체가 가래떡처럼 길게, 오래 살라는 음식이다.

어느 언론매체에 누가 물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고…. 전문가의 답은 이렇다. ① 20세 청년에게는 1년이 20분의 1로, 60세 노년에게는 60분의 1로 느껴진다. ② 나이가 들면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기능이 저하돼 외부변화를 빠르게 느낀다. ③ 늙으면 젊은 시절에 비해 새로운 경험이 적어 특별한 기억이 없다보니 빨리 지나간 것처럼 여긴다.

여기서 ③에 유독 주목한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시간의 길이는 정보의 양에 비례한다고 말한 사람이 독일 학자 슈테판 클라인이다. 모든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어린 시절엔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별로 새로울 게 없어지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럴까? 과학자들이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냈다고 한다.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적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조바심이 난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될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현대인들의 조급증이 시간을 더 빨리 흐르게 만든다. 이 말을 뒤집으면 노년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

또 시간을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다.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다. 영국 심리학 교수 스티브 테일러가 여행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를 잘 말해준다. 절반 이상이 여행지에서의 시간이 집에 있을 때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 새로운 경험 때문이다. 특히 여행지에서의 첫날이 느리게, 마지막 날이 빨리 갔다고 느낀 것도 이를 입증한다. 여행지에 익숙해질수록 새로운 경험이 적어지니까 당연하다. 새로운 경험을 여행에서만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독서 여행을 한다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권장할 일이다.

얼마 전 모 신문사 논설위원이 옛 스승을 찾아가 “요새 어떻게 소일(消日)하십니까?”하고 문안 인사 드렸더니 그 스승이 말도 할 줄 모른다고 핀잔을 주어 부끄러웠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스승은 “소일이라니? 그렇게 소비할 시간이 어디 있나? 앞으로는 석음(惜陰)이라고 하게.”하였다는 고백이다. 세월이 헛되이 지나감을 애석히 여기면서 촌음이라도 아껴 쓰는데 무슨 말이냐는 질책이다.

나도 몇 년 전 인터넷에 올라온 95세 노인의 글을 보며 크게 부끄러웠다. 요약하면 이렇다. “나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65세에 당당히 은퇴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에 후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 퇴직 후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덤이다’는 생각으로 고통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렸다. 30년은 내 나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 이제 나는 어학공부를 시작하려 한다. 10년 후 맞게 될 105번째 생일 때, 왜 95살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 월남쌈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삼년전 쯤, 이년 정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기회가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수년동안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셔서 필자가 가족의 식사를 거의 혼자 도맡아 준비했었다. 주말이 되면 참 곤혹스러운 것이 세끼를 꼬박 우리 음식으로만 드시길 원하셨던 부모님, 그리고 남편, 두 아이들의 식성이 모두 달라 각각의 선호도를 고려한 음식을 만들어 어떤 날은 하루에 일곱 번까지 상을 차린 적도 있었다.

가족 누구에게도 그 고충을 이해받기 어려울 거 같아 짜낸 생각이 웰빙 음식이라며 가끔 월남 쌈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었다. 결과는 대 성공이어서 부모님도 색다르다며 좋아하셨고, 남편은 그럭 저럭이지만 필자와 아이들은 한참 음식의 칼로리를 신경쓰며 먹던 차에 풍부한 야채가 들어가고 맛도 있는 월남쌈을 좋아라 하며 먹었던 기억이 있다.

또 주말이 되면 칠남매나 되는 형제들 중 부모님을 뵈러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오거나 한 팀 또는 두세 팀이 함께 모이는 일이 빈번했다. 부담없이 가족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훈훈하고 반기웠건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에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다.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 주말에 형제들을 맞아 뭔가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물론 같이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메뉴와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대부분 필자의 몫이었다. 이 때도 한 두 번은 <월남 쌈>을 비장의 카드로 썼다. 비교적 나이드신 언니들 중 베테랑 주부도 있었으나, 이 월남쌈이 색다르다고 필자를 신세대 대접을 해주며 칭찬하기도 했다.

월남쌈은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식탁이 풍성해지고 만들기도 간단한 편이다. 뜨거운 물을 넓다란 면기에 담고 라이스페이퍼를 그 물에 잠시 담갔다 내면 조금 후 말랑하게 되고 그 말랑하게 된 페이퍼를 앞 접시에 펴놓는다. 따로 커다란 접시에 풍부하게 준비한 숙주, 얇게 썬 양파와 적채, 당근을 먹을 만큼 라이스 페이퍼 위에 놓은 다음, 삶은 소면과 구입할 때 특별히 얇게 썰어달라고 주문한 삼겹살을 약간 바삭하게 구워서 야채위에 얹는다. 그리고 밑에 깔아 놓은 말랑한 라이스 페이퍼로 엮어 놓은 재료들을 돌돌 말아 땅콩소스나 하이몬 소스에 찍어 먹는다. 생 숙주의 아삭함과 향긋함이 일품이며, 바삭하게 구운 삼겹살의 고소함과 소면을 얹으니 든든함을 더 해주어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규모가 좀 있는 마트에서 월남쌈(라이스 페이퍼)과 땅콩소스, 하이몬 소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진숙 | 접수상담팀장

# 신참 변호사에게 비친 언중위



허중혁 | TV조선 사내변호사

신참 변호사로서 개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에 입사한 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외주제작 등의 계약서 검토, 저작권 협상, 일본 업무 등 여러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라 한다)에 신청된 조정사건과 법원에 제기된 언론소송 등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7건의 언론소송과 15건의 언중위 조정사건을 담당하면서 언론분쟁 영역은 나에게 새로운 전담 영역이 되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프레젠테이션 15층의 언중위를 드나들어야 했고 피신청인의 입장 뿐 아니라 신청인의 입장도 경험할 수 있었다.

보수 언론사에 몸담고 입는 입장이라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주 진보 언론들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매일 틈나는 대로 인터넷상의 기사를 검색하고 수집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대선이 있었던 해라 여당 및 야당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담긴 사건도 처리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심적인 부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언중위에 신청된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즐겁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힘들고 난감했던 기억들이 더 많다.

어떤 신청인은 방송국의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법원 제소까지 동시에 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리에 임했고, 1차 심리에서 합의가 안 되어 2차 심리기일까지 속행이 되었는데 그때쯤 소장이 회사로 송달되었다. 당시 무척 당혹스러웠고 그 사건을 통해 언중위 절차에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무엇이건 쉽게 인정해주는 우리의 법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소를 제기한 입장에서 굳이 언중위를 거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피신청인과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언론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며 가뜰이나 많은 사건의 처리로 바쁜 국가기관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소권의 남용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언중위가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기일불출석 또는 절차 지연과

같은 당사자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현행 법률의 개선도 바라고 싶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공을 들여 답변서를 제출한 후, 언중위에 출두하여 심리를 통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그때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 기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얼마 후 담당부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고 뿌듯한 보람과 함께 흐뭇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다.

우리 방송국의 공익목적 보도가 뜻밖에도 자막에 실수가 있는 바람에 인터뷰 대상이 되었던 신청인에게 피해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음식점을 하는 신청인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 식재료를 쓰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던 보도였기 때문에, 우리 측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해명보도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합의문안을 작성하여 기명날인을 받기 위하여 일산에 있는 신청인의 식당으로 갔었는데, 언중위 변론 때에는 무서워 보였던 신청인이 매우 부드러운 얼굴로 밥이나 먹고 가라면서 한사코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보도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던 신청인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기에 감사인사를 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를 배웅하는 신청인의 얼굴은 참으로 해맑아 보였다. 내가 신청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 줄 수는 없었지만, 합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한 신청인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흐뭇했다.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 없는 상대방이 이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경우, 행동을 한 사람은 당혹스럽고 난감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언론의 보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방송국의 보도가 시청률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런데 방송국이 보도를 위해 취재를 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안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이다. 이런 피해자 분들이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보도본부에 알리면, 처음에는 기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 그러다가 답변서를 작성하고 변론에 임하다 보면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가 전쟁을 할 것처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언중위는 의도하지 않았던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조율하고 풀어 가는 화해의 장이 되고 있었다.

## 저속한 표현? ‘닥치고’

요즘 유행하는 말 ‘닥치고’. 포털 검색창에 ‘닥치고’라고 치면 다양한 검색결과가 뜬다. <닥치고 공연>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YB 밴드와 힙합듀오 리쌍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이름이다. <닥치고 꽃미남밴드>는 작년 1월부터 네이트에 연재된 웹툰 제목이다. 그리고 책 <닥치고 정치>. 아마도 ‘닥치고’라는 말을 유행시킨 것은 이 책이 아닐까 싶다.

‘닥치고’라는 말은 드라마에서도 사용되었다. 작년 8월부터 KBS-2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일일시트콤 제목이 <닥치고 패밀리>, 줄여서 <닥패>다. 드라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홀아비(열석환)와 이혼녀(우신혜)가 만나 한 가족을 이룬다. 이들 두 집안은 그 성씨(姓氏)만큼이나 다르다. 외모로 보나 집안 분위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열성 가족은 열등하고, 우성 가족은 우월하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족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가며 결국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제작진이 밝힌 기획의도다.

지난 1월 초 방송된 <닥패> 102화를 시청했지만 소재나 내용이 모두 건전했다. 이른바 ‘막장 드라마’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드라마 제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닥치고’라는 표현이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저속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한 시청자가 K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닥치고’라는 표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2012가합626)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닥치고’라는 말의 의미다. ‘입을 다물고’의 저속한 표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해 KBS 측은 기발하게 대응했다. 즉, ‘<닥치고 패밀리>는 “가족 해체의 위기와 갈등의 순간이 닥쳤다” 또는 “어떠한 상황이 도래한 가족”의 의미를 담은 것일 뿐, “입을 다물고”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항변한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닥치다’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다’와 ‘입을 다물어 말을 그치다’ 두 가지로 나온다. KBS의 항변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닥치고’의 최근 사용례와 일반 시청자의 시각을 근거로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봤다.

두 번째 쟁점은 ‘닥치고’가 방송에 써서는 안 되는 저속한 표현인지 여부였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옮겨본다.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 주 5회 반복하여 방영되는 일일 시트콤 드라마의 제목을 <입을> 닥치고 패밀리로 정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시트콤 드라마의 속성을 충분히 배려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의 전파성 및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외주제작사가 정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러 용인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고”

판결문에는 ‘닥치고’가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결론만 나올 뿐, 그렇게 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근거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명한 이치인가? 분명 아쉬운 대목이나, 어쨌든 법원에서는 저속한 표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법원은 ‘닥치고’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고 저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자체는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드라마 제목에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인격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니 시청자가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BS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던 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다. 법원 기각 결정 이후, 방통심의위에서 드라마 제목을 문제 삼아 주의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지난 연말부터 드라마 제목은 <닥치고 패밀리>에서 그냥 <패밀리>로 바뀌고 말았다.

‘닥치고’가 공격적이고 센 표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저속한 표현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 법리적으로 모든 저속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닥치고’라는 표현은 책, 공연, 만화, 드라마 제목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고 있다. 여기엔 뭔가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해 ‘닥치고!’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표현의 순화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칠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닐까 싶다.



양재규 | 기획팀 팀장, 변호사



# 언론으로 거머쥔 권력자의 일대기, 영화 「시민 케인」

이용재 | 칼럼니스트



그의 말년은 쓸쓸했다. 두 번째 부인마저 떠난 뒤, 고대 몽고 도시의 이름을 딴 대저택 제너두(Xanadu)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하고만 소통했다. 그 쓸쓸함에 휩싸인 임종에서 남긴 한마디 ‘로즈버드(rosebud)’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니, 뉴스 기사가 숨겨진 뜻을 알아내기 위해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제작자, 감독, 작가이자 배우였던 오슨 웰즈의 걸작 〈시민 케인(Citizen Kane)〉은 언론 재벌이었던 찰스 포스터 케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물론 가상의 인물을 그린 영화지만 그 모든 정황이 실존 인물인 신문 경영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너무나도 비슷하기에, 1941년 개봉 당시 많은 화제를 자아냈다.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본인마저 가세해 소유한 미국 각지의 신문에 영화에 대한 기사 및 평가는 물론, 언급마저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기자들에게 오슨 웰즈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작성하게 시키는 한편 로비스트를 시켜 돈을 지불하고 모든 필름 및 원화를 불태워버리려는 시도도 기울였다.

콜로라도의 눈 내리는 산자락에서 가난하게 살던 케인의 가족은 우연히 손에 넣은 땅에서 발견된 금광 덕분에 부자가 된다. 교육을 위해 부모 곁을 떠나 후견인과 함께 동부로 간 그는 25세가 되던 해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재산 덕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재미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였으니, ‘뉴욕 인콰이어러(New York Inquirer)’를 인수하고 유능한 기자들을 끌어온다. ‘정직한 뉴스를 제공하고 시민, 또한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지지한다’는 두 가지의 원칙을 1면 머리에 내세우며 야심차게 신문 사업에 뛰어든 그는 뉴욕 외의 도시에도 신문사를 창업하고 사업 규모를 늘린다. 오슨 웰즈의 생전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케인과 허스트는 많은 면에서 닮아 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정치 입문 시도며 사생활, 심지어는 로즈버드의 수수께끼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대저택 제너두마저도 허스트가 말년을 보낸 캘리포니아의 성(Hearst Castle)에서 따왔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닮았다. 사실 허스트는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대표되는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의 창시자다. 1890년대 그의 신문 〈뉴욕 저널〉은 조셉 풀리처-그가 콜롬비아 대학에 기증한 돈이 언론계 최대의 영예 풀리처상의 밑거름이 되었다-의 〈뉴욕 프레스〉와 치열한 경쟁을 치렀는데, 이때 구독자 확보를 위해 선정주의에 기초한 것은 물론 출처 및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기사를 신기 시작한 것이다. 1면 머리에 자신의 사실과 정직함에 입각한 원칙을 내세웠던 케인 또한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언론을 통해 힘을 얻으며 초심을 잃어간다.

로즈버드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기자가 만난 사람들의 회상에 의해, 케인의 삶은 각 부분별로 재구성되어 그렇게 그가 초심을 잃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시만 해도 회상 기법 자체가 널리 쓰이지 않던 터라, 하나도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한 회상은 굉장히 획기적인 구성방식이었다. 거기에 덧붙여 근경과 원경 모두를 아울러 선명하게 잡는 ‘딥 포커스(전심포점)’ 기법의 도입, 특수효과, 분장, 영화 전반에 흐르던 당시의 영화와는 달리 적재적소에만 활용하는 음악까지, 모든 면에서 시민 케인은 획기적인 영화였다. 너무나도 획기적이었기에 개봉 당시 흥행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아카데미상 여섯 부문의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영화의 진화’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2007년의 〈미국 영화 연구소 재선정 역대 가장 위대한 미국 영화 100선〉 1위 등, 현재까지도 거듭된 재평가를 통해 걸작으로서의 입지를 굳게 지키고 있다.

한편, 기자의 치밀한 취재를 통해서도 밝히지 못했던 비밀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다소 허망하게 드러난다. 케인의 사후, 사람들은 짐을 정리하며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불가마니 속으로 던져버린다. 그런 물건들 가운데는 그가 콜로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썰매도 있으니, 불길에 휩싸여 가며 드러나는 그 썰매의 이름이 바로 로즈버드다. 케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은 결국 사심 없이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 감기와 독감, 어떻게 다른가요?

평소 건강한 젊은이들도 일 년에 서너 차례는 감기(?)같은 종류를 경험하고 지나간다. 감기란 호흡기가 시작되는 코나 목 부위 상기도에만 바이러스 감염이 국한되는 것으로 증상은 코감기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목감기는 인후통, 기침 등이며 전신적으로 두통과 열감, 피곤함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2~3일 정도 심하다가 점차 약해져서 1주일 전후면 사라지는 것이 감기의 특징이다.

처음에는 감기로 생각했어도 코감기 증상이 1주 이상 계속 반복되거나, 인후통이 한 쪽만 심하게 있거나, 고열이 동반되거나, 기침, 가래가 2주가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감기가 아닌 다른 병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감기여도 몸이 약하여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면 병원체가 더 내부로 침투하여 부비동염(축농증),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때는 증상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

독감은 심한 감기가 아니라 원인이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인 특별한 호흡기 감염이다. 걸리면 고열과 심한 근육통을 보이며 감기 증세도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치사율이 높은 병으로 미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종류도 많고 독성도 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없다). 만약 유행 시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곧 병원을 방문하여 독감 바이러스의 확인이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상의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독감을 감기처럼 약하게 앓고 지나는 경우(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도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에는 독감인지 감기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이때는 감기처럼 취급해도 무방하다. 독감이든 감기든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고, 귀가 후에는 손을 잘 씻고 입을 행구는 것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기의 치료는 시간이 약이지만, 힘들면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려 주는 <대증 요법>을 할 수 있다. 해열진통제는 인후통, 두통, 근육통, 나른함, 발열의 증상을 한꺼번에 없애 주므로 4~6시간 간격 이상으로 그때그때 복용한다. 콧물과 재채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기침에는 진해제를 복용하는데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감기약에는 이런 성분들이 조금씩 혼합되어 있다. 가장 불편한 증상인 코막힘에는 비강 분무제를 잠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병원을 방문하면 이런 약들을 증상에 맞게 적절히 처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진료 후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면 항생제만은 정해진 시간과 기간을 꼭 지켜서 복용해야 한다.

또한 이때를 이용하여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적절한 휴식과 달콤한 잠을 곁들인다면 이는 감기 뿐 아니라 재충전에도 좋은 약이 되겠다.



**김현성**  
국립서울병원 내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 COMMISSIONERS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취임



**한은경** 위원(서울 제2중재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1월 17일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은 2000년부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4년까지 2년간 언론정보대학원 원장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취임



**김정택** 위원(서울 제6중재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1월 17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은 2000년부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4년까지 2년간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렴옴부즈만으로 뽑혀



**류석호** 위원(경기중재부, 전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은 2012년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청렴옴부즈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청렴성과 투명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외부 통제시스템으로 임기는 2년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렴옴부즈만'은 변호사, 대학교수, 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감사)은 1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결선투표에서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회원들의 첫 직접선거로 실시된 이번 투표에서 위철환 위원은 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처음으로 회장으로 선출됐다. 위 위원은 2월 25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 전북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



**김종춘** 위원(전북중재부,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이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 5인 중 1인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140여 명의 변호사가 해당 지역 법관 48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우수법관에 선정된 5인은 재판에 올라온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주중재부 전·현직 중재위원 간담회 개최



**오현규** 위원(제주중재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은 지난해 연말 제주 칼호텔에서 전·현직 중재위원 간담회를 개최, 위원회 소식 및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 등을 설명하고

제주지역 언론 동향 및 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 사진 앞줄 왼쪽부터 서송목 전 연합뉴스 제주지사장, 허영선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고창실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현영두 변호사, 오현규 중재부장, 소설가 한림화, 우정임 간사
- ▶ 사진 뒷줄 왼쪽부터 권범 변호사, 강봉훈 위원, 고재민 전 제민일보 편집위원, 이연봉 변호사, 조맹수 위원, 박경숙 위원, 김재원 위원

# NEWS

##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 좌담회 개최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는 12월 28일, 선심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산 좌담회를 열었다.

선심위는 그동안 총 1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심의 47건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고, 시정요구 4건을 처리했다. 박기동 위원장은 “언론보도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다”며 “언론이 공정보도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구성된 2012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심위에서는 자체 심의로 주의 3건, 시정요구로 주의 1건, 취하 1건을 처리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심위 운영기간 : 2012. 4. 22. ~ 2013. 1. 18.
- 2012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심위 운영기간 : 2012. 10. 20. ~ 2013. 1. 18.

## 2013년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교육 실시



위원회는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주간 제43기 사법연수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원생은 언론조정·중재 및 기사심의 실습과 함께, ‘학교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의 보호’를 주제로 모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교육에 이어, 2013년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교육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서울대, 고려대 등 7개 대학의 12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언론조정·중재 심리참관 및 조정사례 토론, 언론피해 상담체험, 시정권고·기사심의 체험, 중재위원과의 대화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 중·고등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을 교육하고 이수증을 수여한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 2013년 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예정

위원회는 2013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프레스센터빌딩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위원회는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원과 시정권고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 위원회 사무처 인사 등

- 감사역 운영본부 총무팀 팀장 이미경 (2013. 1. 7.자)
- 파견[국방대학교] 전문위원 류석창 (2013. 2. 4.자)
- 직원해외실무연수[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전문위원 이수중 (2013. 1. 15.자)
- 2012년 문화미디어산업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교육팀 여운규 차장

## 〈201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발간



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위원회를 이용한 조정·중재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자와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201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를 발간했다.

위원회의 이용만족도 조사는 1989년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가 시초이며, 2003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에 활용하고 있다. 전체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http://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에서 볼 수 있다.

# CASES

## 조정중재사례 소개

### | 명예훼손 사례 | 범죄 피의자에 대해 보도하더라도 익명처리를 했어야

A언론사는 보안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대형 마트에서 소액 상품을 훔친 절도범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보안요원들을 부추겼다는 경찰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신청인 회사는 보도내용과 같이 보안요원들을 부추긴 사실이 없고, 경비업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중재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 보도하더라도 익명처리를 했어야 하고, 경찰 조사결과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일부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피신청인을 설득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

### | 음성권 침해 사례 | 동의없이 신청인의 음성을 공개한 것은 음성권 침해

B언론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원액기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의 초상 및 음성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음성이 그대로 방영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직업이 쇼호스트인 점을 감안, 신청인의 초상이 모자이크 처리가 일부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음성만으로도 시청자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동의없이 신청인의 음성을 공개한 것은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들은 100만원의 손해배상으로 합의했다.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김선미** \_ 새해부터 전직 야구선수의 죽음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지요. 그 후로 며칠동안 미디어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이나 숙연함보다는 그저 자극적인 영상과 언급들이 더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런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가 불특정다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자살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하지 않나 싶었는데 마침 본지에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이라는 기사가 실려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자살을 단순히 정칙적, 정신분석학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보다 다각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석** \_ 정직한 국민이 되도록 애쓰자는 권성 언론중재위 위원장님의 신년사와 함께 시작한 이번 호에서는,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의 인터뷰를 통해 2013년도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초와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게 다시 한 번 꿈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자살에 대한 동, 서양의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진 정책심포지엄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성찰할 필요성을 일깨워준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모두가 공감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에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 호도 알차게 읽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다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언론중재위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용도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언론중재위의 계속된 노력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전창희** \_ 「기사형 광고' 기사인가 광고인가」를 잘 보았습니다. 평소엔 신문을 보다보면 기사형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쓴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광고를 기사로 잘못 알고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최근 법원에서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니 정말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언론이 이 사회에서 맡은 책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기사형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고 부디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묻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 잘못된 오해를 참다운 이해로 바꾸면 언론과 국민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 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  
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